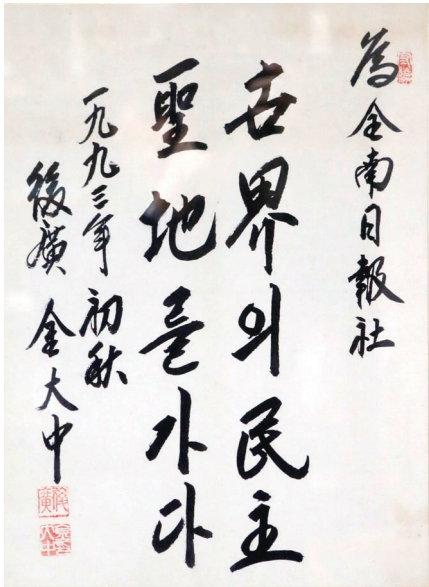




제4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가 지난 2023년 9월14일 광주 동구 리마나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려 첫번째 강연자 김병조 광주보건대학교 초빙교수,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김용권 원우회 회장과 회원 등이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서남단 영해기점 가거도 일원 해양영토 순례참가자들이 2023년 7월 4일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새누리호에서 우리 해양 영토의 소중한, 영해기점 가거도의 가치, 해양영토순례 참여 소감 등을 작성한 대형 태극기와 가거도 항공사진 현수막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의 민주 성지를 가다' 특집 기념 김대중당시 민주당 총재 취회.



'세계의 민주 성지를 가다' 첫 시리즈가 실린 지면.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가 지난 4월 1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일보 주최로 열렸다.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광주·전남 당선자, 초청 내빈 등이 호남의 꿈과 미래,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남일보 창간 축하연이 1989년1월9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려 이훈동 회장이 초청 귀빈들과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1989년 1월 창간 이래 전남일보는 환희와 질곡의 역사를 거치며 독자와 함께했다. 다사다난했던 35년, 그 숱한 세월 동안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 아래 독자와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사명을 울곧게 지켜온 '전남일보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령 1만호에 이르기까지 전남일보가 걸어온 '영산강 살리기, 무등산 살리기, 바다 살리기 캠페인, 공프로젝트와 세계 민주성지를 가다, 세계 농촌을 가다' 등 기획기사 등을 사진으로 되돌아봤다.

편집자주



바다의 날을 하루 앞둔 2023년 5월 30일 신안 임자도 어머니 해변에서 열린 2023 바다살리기 신안군 실천대회에서 임자면사무소 직원과 어촌계 어민들, 신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각종 폐어구 등을 수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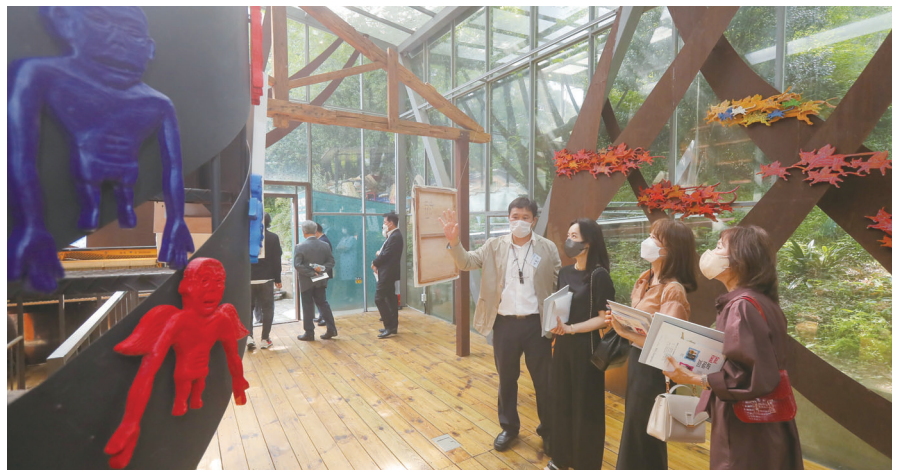
1989년1월7일 창간을 앞두고 일본제 HAMADA 옷빨이기를 도입, 1988년 12월 창간 소식지를 발행한 가운데 이훈동 회장, 최종수 초대사장, 문순태 초대 편집국장 이 기사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제21회 호남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국내·외 마라토너 1000여명이 지난 4월 21일 광주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광장에서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전남일보사와 재경 광주전남향우회가 공동주최한 2018전라남도 귀농귀촌박람회 2018년 4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김대하 재경 광주 전남 향우회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이 개막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24일 광주 남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 전남일보 '2021 소울푸드 아트페어' 행사에서 김용진 전 광주시의회 의장, 이기표 전 아시아문화원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등 내외빈들이 이이남, 김상연, 박일규, 정정하 작가의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